

제 1회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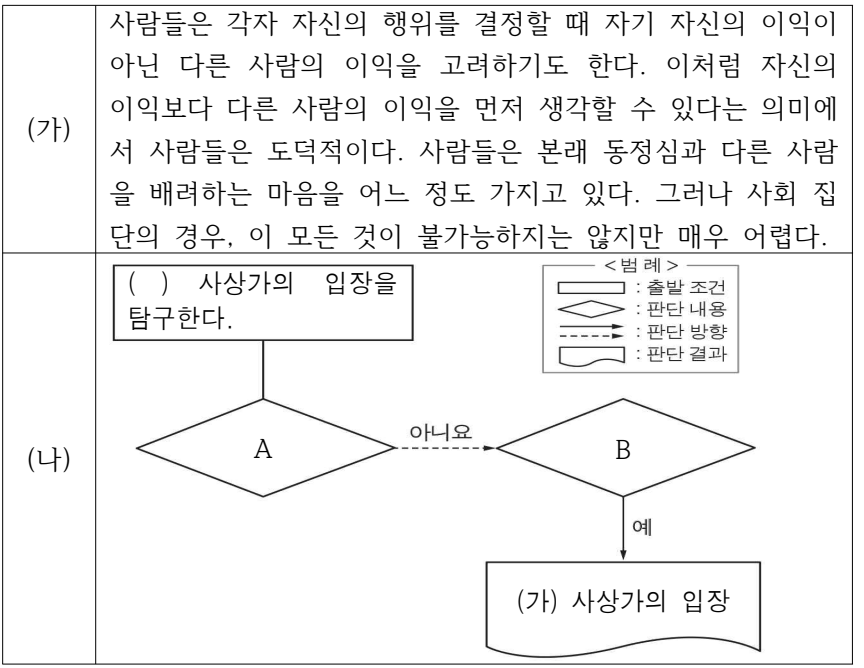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의 개념 분석과 도덕 판단의 타당성 입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윤리학은 환경 윤리, 생명 윤리, 정보 윤리, 성 윤리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학문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자의 견해는 ㉠ 고 생각된다.

<보 기>

- ㄱ. 다양한 문화권에 존재하는 관습에 대한 설명과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 ㄴ. 도덕적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 분석을 주요 탐구 과제로 삼고 있다
- ㄷ.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 엄밀히 탐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ㄹ.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의 해결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동일한가?
- ㄴ. A :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은 사회 집단 속에서 약화된 형태로 나타나는가?
- ㄷ. B :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개인적 양심의 역할은 불필요한가?
- ㄹ. B : 사회 윤리적 문제는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가?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상의 수양 방법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고자 한다.
- 덕행을 닦아 인과 의를 지키며 겸손하게 행동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군자의 대열에 들어갈 것을 수양의 목표로 삼는다.

수양 방법	학생				
	갑	을	병	정	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삼독을 제거하고자 한다.	√	√		√	√
경(敬)의 실천을 토대로 사덕(四德)을 회복하고자 한다.	√		√	√	
물[水]과 같은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갖추하고자 한다.		√		√	√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4. 다음은 어느 서양 사상가의 글이다. 이 사상가의 자연에 대한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인간은 분명히 신성하지 않으나, 그의 인격 속의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의욕하고 또 우리가 지배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오직 인간,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있는 모든 이성적 피조물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 즉, 그는 도덕 법칙의 주체이며, 도덕 법칙은 그의 자유가 지닌 자율 때문에 신성한 것이다.

- ① 동물은 자의식을 지니므로 존중해야 한다.
- ②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한다.
- ③ 인간뿐 아니라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 ④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 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성에 대한 간접적 의무이다.

5. (가)와 (나)의 공통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설 (가)에서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죽은 사람들의 사체를 이어붙인 다음 생명을 불어넣는 실험을 실시한 끝에 마침내 피조물을 창조해 낸다. 하지만 이 피조물은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 사람들로부터 괴물 취급을 당하게 된다. 이에 분노한 괴물은 복수를 결심하며 결국에는 자신을 만든 박사를 찾아가 복수한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복수한다는 설정은 영화 (나)에서도 나타난다. 이 영화는 가까운 미래에 외계의 식민지 개척용 복제 인간을 생명 공학으로 만들어 내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영화에서 복제 인간의 수명은 불과 4년에 불과한데, 이들은 수명을 연장하고자 자신을 창조한 천재 과학자를 만난다. 하지만 그에게도 생명 연장의 비책이 없음을 안 복제 인간들은 그를 죽이고 만다.

- ① 과학 기술의 연구는 경제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 ② 과학 기술을 과학계의 자율적 영역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③ 과학자는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 ④ 과학자와 피조물 사이의 신뢰는 과학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 ⑤ 과학자는 과학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6.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0신문 0000년 0월 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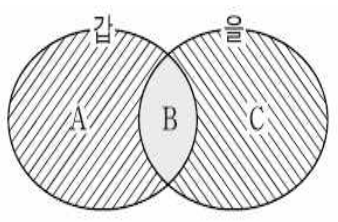
제목 : ㉠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며,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위협하는 행위가 상대방이 갖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책임하게 발휘하게 되면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낙태 등 무고한 생명을 훼손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성적 자기 결정권에는 한계와 책임이 필요하다.
- ②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③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이다.
- ④ 성적 자기 결정권은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한다.
- ⑤ 사회 규범으로 성행위를 제한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철인(哲人)들의 소원이 성취되어 죽음의 세계에 도착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동시에 그들의 원수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곳으로 떠나려 할 즈음에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떨고 싫어하는 것처럼 모순된 일은 없다.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로서, 그리고 저 죽음의 세계에서만 지혜를 보람 있게 향유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죽음을 싫어하겠는가?  
 을: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아니라고 믿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감각의 능력을 전제하는데 죽음은 바로 모든 감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제한적인 시간을 부여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불멸성에 대한 열망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유한한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 기>**

- ㄱ. A : 죽음은 영혼이 지혜의 활동을 방해하는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 ㄴ. A : 죽음은 모여 있던 기(氣)가 흩어지는 것으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다.
- ㄷ. B :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 ㄹ. C : 죽음은 영원하고 참된 쾌락에 도달하는 것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 ㉠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미국프로야구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2014년 ‘리플레이가 야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라는 제목의 시즌 결산 기사를 보도하였다. ‘리플레이’는 야구 경기에서 MLB가 도입한 비디오 판독 제도이다. MLB닷컴에 따르면 2014년 정규시즌에서 1275건(한 경기 당 0.52번)의 비디오 판독 사례가 나왔고 이 중 47.3%인 603건이 오심으로 확인되어 판정이 번복되었다. 한국프로야구(KBO)도 2014년 비디오 판독 제도를 ‘심판합의판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였다. 2014년 후반기 217경기에서 나온 심판합의판정은 115개(한 경기 당 0.53번)였는데, 이 중 40.9%의 판정이 번복되었다. 프로야구는 4명의 심판이 있지만 ‘페어플레이’를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로 비디오 판독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 기>**

- ㄱ. 오심을 줄여 판정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 ㄴ.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다.
- ㄷ. 심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심판 판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 ㄹ. 스포츠 경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묘미가 사라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제: 통일과 관련된 비용**

1. ㉠ : 전쟁 위기 및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지불되는 비용

2. ㉡ : 남북한 체제가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

주제에 대해 학습해 봅시다.

- ① ㉠은 막대한 군사비와 안보 비용이다.
- ② ㉠은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는 비용이다.
- ③ ㉡은 남북 경제 협력과 대북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④ ㉡은 남북한의 대결과 갈등으로 지출되는 유무형의 비용이다.
- ⑤ ㉡은 ㉠에 비해 한번 지출되면 사라져 버리는 소모적 성격이 강한 비용이다.

10.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국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입니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분쟁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이성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 기>**

- ㄱ. 갑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보다 상위의 중앙 권위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 ㄴ. 갑은 국제 관계가 문화적 속성에 기초한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 ㄷ. 을은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 ㄹ. 갑과 을은 국제 관계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갑: 윤리적인 인간은 이 생명 혹은 저 생명이 얼마나 값진가를 묻지 않으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묻지 않는다.  
 을: 돌맹이를 차는 것은 돌맹이의 복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반면에 쥐는 차인다면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학대 받지 않는 것이 쥐에게는 이익이다.

(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

    graph TD
      Start[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B -- 아니요 --> C{C}
      B -- 예 --> End1[갑의 입장]
      C -- 예 --> End2[을의 입장]
    
```

- ① A : 탈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에 있는가?
- ② B : 모든 자연 전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③ B : 생명체 모두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 ④ C :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는가?
- ⑤ C :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도덕적 책임의 대상인가?

17.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가), (나)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주권 재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로써,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demo(국민)'와 'kratos(지배)'가 합쳐진 말로 '국민의 지배'를 뜻한다.

(나) 옛날 성왕은 반드시 백성들의 귀와 눈을 자신의 귀와 눈으로 삼아 민의를 모두 파악하였고, 신하는 그 직책에 따라 옳고 바른 것을 진술하게 하였으며, 상인들까지 시장이나 노상에서 비판하게 하니 백성들이 모두 간관(諫官)이었다.

◎ 학생 답안

정치에 있어서 (가)는 ㉠ 통치자를 선택하는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며 ㉡ 국민들에게 정치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권익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도록 요구한다. 반면, (나)는 ㉢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것을 통치자의 의무로 여기며, ㉣ 권력의 정당성을 백성의 동의에서 찾았다. ㉤ (가)와 (나) 모두 인간 존중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8. (가)의 관점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나)의 ㉠의 도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음양은 본래 '산기슭의 햇빛이 비추는 곳과 그늘진 곳'을 지칭하는 문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빛과 그림자의 관계이다. 즉, 그림자가 있는 반대편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빛이 있는 반대편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음의 개념에는 이미 양이 전제되어 있고, 양에는 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무릇 ㉠인 인륜(人倫)의 시작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니, 지극히 친하고 가까워도 지극히 바르게 삼아야 할 사이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禮)와 공경을 잊고 버릇없이 급하게 친해지면, 업신여기고 능멸하여 못할 짓이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가 서로 손님같이 공경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 ① 혈연에 기초한 자애(慈愛)를 실천한다.
- ② 동기간(同氣間)으로서 서로 친애하고 협력한다.
- ③ 상호 분리되어 독자적인 삶의 영역을 구축한다.
- ④ 남녀 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별적 대우를 인정한다.
- ⑤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19. ㉠과 ㉡의 입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태아의 생명을 강조하는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가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을 고소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여성 단체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갈등은 태아의 권리와 임신부의 권리가 상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
①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할 권리를 지닌다.
②	태아는 잠재적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잠재적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③	무고한 인간을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④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할 권리를 지닌다.
⑤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

20. 다음 글에 나타난 삶의 태도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맹사성이 우의정 때에 병조 판서가 국사를 논의하기 위해 맹사성의 집을 찾은 일이 있었다. 마침, 7월 장마 때라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맹사성의 집은 비가 새어 세간이 모두 젖었고, 두 사람은 방 안에서 샷갓을 쓰고 앉아 대화를 나누어야 했다. …(중략)… 효성이 지극한 맹사성은 온양에 사시는 아버지를 뵈러 갈 때면 하인 한 명만 데리고 소를 타고 다녔다.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차림의 허술한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여 그를 기다리던 고을 현감들조차 몰라보았다는 일화도 있다.

〈보 기〉

㉠. 의(義)보다 이(利)를 우선하는 삶을 추구하였다.  
 ㉡. 현실 정치를 벗어난 학문과 수양을 추구하였다.  
 ㉢. 절용(節用)을 실천하는 청백리의 삶을 지향하였다.  
 ㉣. 청빈(淸貧)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